데일리 실적 대시보드: 다섯 종목 모두 EPS 컨센서스 상회, 주가는 종목별로 엇갈림

26.10.21 ·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Daishin RESEARCH

핵심 요약

- 스페이스엑스 EPS 156% 상회, AI 사업이 최대 세그먼트
- GE·RTX 13 분기 연속 비트에도 분기 FCF 역성장
- 넷플릭스 광고 매출 전망 30 억→27 억 달러 하향

코멘트

어제 발표한 다섯 종목이 모두 EPS 컨센서스를 상회했지만 주가 반응은 실적 자체와 따로 움직였다. GE 에어로스페이스는 13 분기 연속 비트에 FY26 가이던스 전 항목 재상향까지 얹었는데도 당일 3.67% 하락했고, 증익의 3 분의 1 남짓이 관세 환급에서 나온 RTX 는 0.64% 올랐다. 숫자의 질을 따지자면 산업재 두 종목 모두 분기 FCF 가 전년 대비 역성장했고, 넷플릭스는 매출 가이드에 부합했으나 광고 매출 전망을 끌어내렸다는 점에서 비트의 성격이 종목별로 크게 갈렸다.

실적 발표

종목	분기	EPS 예상	EPS 발표	EPS 서프	매출 예상	매출 발표	매출 서프	주가 반응
SPCX	Q3 FY26	$0.14	$0.35	+156.3%	$12.89B	$14.57B	+13.1%	—
RTX	Q3 FY26	$1.78	$2.26	+27.0%	$24.11B	$24.96B	+3.5%	+0.64%
ISRG	Q3 FY26	$2.65	$3.00	+13.4%	$2.91B	$3.05B	+4.9%	—
GE	Q3 FY26	$2.01	$2.25	+12.0%	$12.88B	$14.12B	+9.6%	-3.67%
NFLX	Q3 FY26	$0.82	$0.87	+6.0%	$12.87B	$12.87B	0.0%	—

종목	실적 발표 내용
SPCX Q3 FY26	매출 145.8 억 달러로 전년 동기 55.8 억 달러 대비 161% 늘었고, 증가분 67.6 억 달러 가운데 50.0 억 달러가 SI 한 세그먼트에서 나왔다. SI 매출 75.6 억 달러(전분기 대비 195%)로 전사 비중 51.9%를 차지해 처음으로 최대 세그먼트가 됐고, Cursor 인수 관련 주식보상비용 12.0 억 달러를 반영한 뒤에도 GAAP 영업이익 4.31 억 달러로 직전 분기 12.6 억 달러 영업손실에서 흑자 전환했다. Connectivity 는 매출 52.5 억 달러(+69%)·영업이익률 45.1%로 추세가 가장 깔끔하며 가입자 1,360 만명, 월 ARPU 69 달러(전분기 대비 +5%)인데 전년 83 달러 대비로는 여전히 낮아 가격이 아닌 물량·채널 믹스가 성장을 끌고 있다. Space 는 매출 17.7 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84% 늘었으나 전년 대비로는 6% 증가에 그쳤고 총 발사는 35 회(전년 44 회)로 줄었다. 분기 캐펙스 195.9 억 달러는 분기 매출의 1.34 배이며, 회사는 정량 가이던스를 이번에도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콘퍼런스콜에서 4 분기 캐펙스를 350 억~400 억 달러로 제시하고 연간반복매출 1,000 억 달러 목표가 궤도에 있다고 밝혔다.
RTX Q3 FY26 주가 +0.64%	매출 249.65 억 달러(+11%, 유기적 +12%), 조정 EPS 2.26 달러(+33%)로 분기 조정 EPS 가 2 달러선을 넘은 첫 사례다. 다만 조정 세그먼트 영업이익 증가분 11 억 달러 중 4 억 달러가 IEEPA 관세 비용 환급(Collins 약 2 억 5,000 만, Pratt 약 1 억 6,000 만)이고 조정 EPS 에도 0.25 달러가 기여해, 이를 제외하면 2.01 달러(+18%)다. 세 세그먼트가 모두 두 자릿수 매출 성장과 마진 확장을 동시에 냈고 Collins 조정 ROS 21.3%(+560bp), Raytheon 14.1%(+190bp), Pratt 10.5%(+160bp)였으나 Pratt 보고 영업이익에는 고객 파산 관련 3 억 6,300 만 달러 손실이 반영돼 19% 감소했다. 백로그는 3,400 억 달러로 사상 최대이며 방산 백로그만 한 분기에 1,190 억 달러에서 1,640 억 달러로 확대됐다. 반면 FCF 21 억 1,900 만 달러(-47%)로 역행했는데, 전년 동기가 시계열 최고치였던 기저효과가 크고 이번 FCF 에도 IEEPA 현금 약 3 억 달러가 포함돼 있다. FY26 가이던스는 매출 970 억~975 억 달러, 유기적 성장 10~11%, 조정 EPS 7.65 달러 이상 등 네 항목이 동시에 상향됐다.
ISRG Q3 FY26	매출 30 억 4,870 만 달러(+22%)로 분기 매출이 처음 30 억 달러를 넘었고, 전년비 성장률은 Q2 18.5%에서 21.7%로 다시 올라섰다. non-GAAP EPS 3.00 달러는 컨센서스를 13.4% 상회했으며 관세 환급 2,200 만 달러(주당 0.06 달러)를 제외한 2.94 달러로도 11% 이상 비트다. 다빈치 배치 546 대(+27.9%, dV5 315 대)로 시스템 매출이 30.3% 늘었고, 프로시저 성장 14%와 매출 성장 22% 사이 8%p 괴리는 리스 매출 확대와 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 유통사업 인수에 따른 직판 전환이 복합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GAAP 영업이익 5 억 9,300 만 달러는 반독점 집단소송 합의금 4 억 5,000 만 달러가 판매관리비에 반영돼 전년보다 줄었고, 합의금 제외 GAAP 영업이익률은 34.2%다. 자사주 매입은 790 만 주·29 억 4,000 만 달러로 직전 패턴의 최대치를 크게 넘었다. 우리 모델이 7 월 16 일 제시한 Q3 예측(매출 27 억 8,000 만~28 억 7,000 만 달러, non-GAAP EPS 2.45~2.60 달러)은 실제치가 각각 상한을 6.2%·15.4% 초과해 명확한 미스로 평가했다.

GE Q3 FY26 주가 -3.67%	조정 EPS 2.25 달러(+36%)로 컨센서스를 12.0% 상회해 독립법인 체제 이후 13 분기 연속 비트를 이어갔고, 조정 매출 132.9 억 달러(+18%)도 컨센서스를 넘었다. 영업이익률 22.5%(+220bp)로 4 개 분기 연속이던 전년 대비 마진 축소가 끊겼지만, 세그먼트 마진은 CES 27.9%(-10bp)·DPT 13.7%(+20bp)로 평탄했고 전사 영업이익 증가분 6.89 억 달러 중 1.52 억 달러가 본사비용·제거 항목 개선에서 나왔다. 성장률 단계는 한 칸 내려와 CES 서비스 +17%(Q2 +26%), 내부 샵비짓 매출 +12%(Q2 +25%), LEAP 납품 +5%(상반기 +41%)였으나 총 수주는 190 억 달러(+49%)로 가속했다. 현금흐름이 약한 고리로, FCF 20.4 억 달러(-14%)는 8 분기 흐름에서 처음 전년 대비 역성장했고 9 개월 누적 기준으로 4 분기에 23.7 억~26.7 억 달러가 필요하다. FY26 가이던스는 조정 EPS 8.00~8.10 달러, 영업이익 109 억~110 억 달러, FCF 91 억~94 억 달러로 두 번째 상향을 받았다.
NFLX Q3 FY26	매출 128.7 억 달러(+11.8%, 고정환율 기준 +11%)로 회사 가이드 128.6 억 달러에 부합했으나, 성장률은 다섯 분기 연속 감속해 보도 기준 3 년 가까운 기간 중 가장 낮다. 영업마진 34.6%(+640bp)는 8 분기 최고치지만 회사는 비용 인식 시점 이동과 매출 소폭 상회에서 비롯됐다고 명시했고, Q4 가이드는 26.0%(헤드카운트 축소 관련 약 120bp 부정 영향 포함)·연간 31.5%다. EPS 0.87 달러는 컨센서스를 약 6% 웃돌았으며 희석주식수 3.3% 감소가 얹힌 구조다. FY26 매출 가이드 511 억 달러는 직전 레인지 중간값 대비 0.2% 하향인데, 구독 매출이 기대를 상회한 반면 광고 매출 전망이 약 30 억 달러에서 약 27 억 달러로 내려간 구성 변화가 더 중요하다. 사유는 일부 광고 제품 기능의 전개 속도가 예상보다 느렸다는 것이고, Q4 매출은 134 억 달러·EPS 0.67 달러로 제시됐다. 우리 모델의 7 월 16 일 예측(매출 127.5 억~129.5 억 달러, EPS 0.80~0.85 달러)은 매출이 레인지 중앙부에 안착해 적중했으나 수익성은 과소추정으로 평가했다.

섹터 신호

산업재(GE·RTX)는 수주·백로그가 동시에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되고 FY 가이던스가 상향됐지만, 두 종목 모두 분기 FCF 가 전년 대비 역성장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손익 비트의 품질도 비슷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데, GE 는 증익분의 일부가 본사비용 개선에서, RTX 는 관세 환급에서 나왔다. 통신서비스(NFLX·SPCX)는 방향이 정반대로, 넷플릭스는 성장 감속과 광고 전망 하향이 겹친 반면 스페이스엑스는 AI 인프라 사업이 한 분기 만에 최대 세그먼트로 올라섰다. 다만 스페이스엑스는 분기 캐펙스가 매출의 1.34 배이고 4 분기에 350 억~400 억 달러로 더 늘어난다는 점에서 자본 집행 부담이 커지는 국면이며, 머스크가 테슬라와의 합병을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양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사실이 별도 변수로 추가됐다.

이번 주 발표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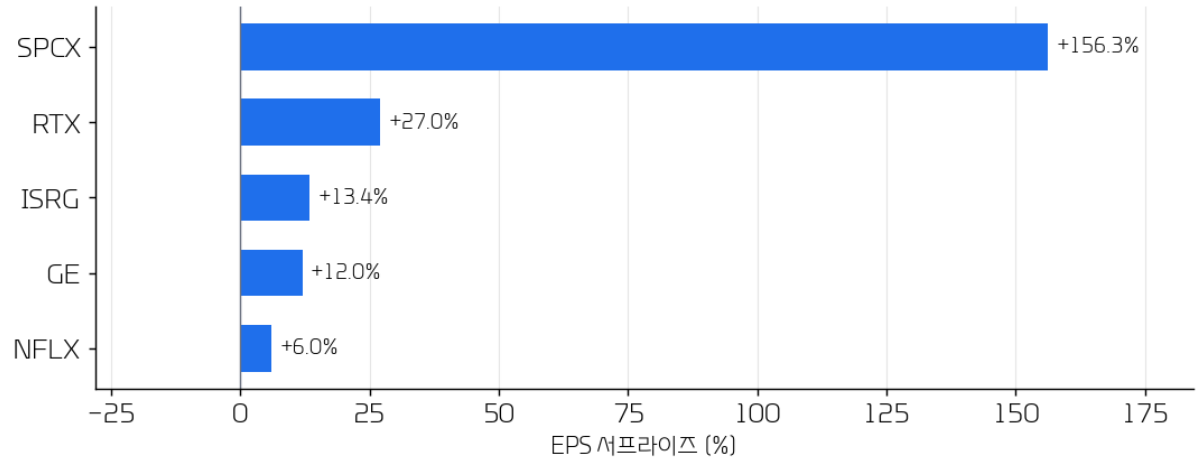
종목	회사명	발표일	섹터	이번분기 컨센 EPS	FY 컨센 EPS(전년비)
ABT	애보트	10/21	헬스케어	$1.42 (23 명)	$5.52 (+7.2%)
NEE	넥스테라 에너지	10/21	유틸리티	$1.19 (14 명)	$4.04 (+8.9%)
TMO	테르모 피셔 사이언티픽	10/21	헬스케어	$6.40 (21 명)	$25.14 (+9.9%)
LMT	록히드 마틴	10/22	산업	$7.52 (16 명)	$30.43 (+31.6%)
LRCX	램리서치	10/22	정보 기술	$2.18 (25 명)	$9.47 (+62.7%)
META	메타 플랫폼스	10/22	통신 서비스	$6.53 (34 명)	$30.67 (+30.6%)
PG	프록터 앤 갬블	10/22	필수소비재	$1.88 (19 명)	$6.97 (+1.2%)
TSLA	테슬라	10/22	임의소비재	$0.45 (29 명)	$1.71 (+3.0%)
ABBV	애브비	10/23	헬스케어	$3.86 (17 명)	$14.07 (+40.7%)
BE	블룸 에너지	10/23	산업	$0.69 (21 명)	$2.73 (+259.2%)
NEM	뉴몬트	10/23	소재	$1.95 (16 명)	$9.32 (+35.3%)
BA	보잉	10/27	산업	-$0.24 (21 명)	-$0.99 (-84.9%)
FCX	프리포트 맥모란	10/27	소재	$0.82 (16 명)	$3.15 (+78.0%)
KO	코카콜라	10/27	필수소비재	$0.88 (18 명)	$3.31 (+10.3%)
GEV	GE 베르노바	10/28	산업	$3.99 (22 명)	$28.04 (+290.0%)
V	비자	10/28	금융	—	$13.24 (+15.4%)

모델 스코어 & 주가 수익률

종목	종합	컨빅션	펀더멘털	센티멘트	모멘텀	1 주	1 개월	6 개월	연초대비
ISRG	67.9	medium	100.0	58.0	75.6	+4.23%	+9.05%	-9.43%	-22.66%
RTX	63.7	low	93.0	58.0	50.5	+3.68%	-0.51%	+6.87%	+5.42%
SPCX	61.8	low	83.0	50.0	39.1	-2.87%	-2.67%	—	—
GE	61.6	low	100.0	53.0	47.6	-2.33%	-6.00%	+8.53%	-2.65%
NFLX	60.6	low	100.0	58.0	30.6	-2.66%	-6.37%	-26.33%	-26.74%

펀더멘털 점수는 다섯 종목 중 셋이 100 점인데 컨빅션은 ISRG 만 중립 이상이고 나머지는 모두 낮아, 실적의 질과 가격·심리 지표가 어긋나 있다. 넷플릭스는 펀더멘털 100 점에도 모멘텀 30.6 점·연초대비 −26.74%로 격차가 가장 크고, 산업재 두 종목은 비트에도 1 개월 수익률이 RTX −0.51%·GE −6.00%로 부진하다.

실적 발표 종목 EPS 서프라이즈 분포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